

세계를 향한 비상 세브란스캠페인

택시를 탈 때, 이렇게 말합시다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갑시다”
“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 갑시다”

창 간: 1981년 9월 14일
발행인: 박창일
편집인: 금기창
대표전화: (02)2228-1075~6
FAX: (02)393-7681
E-mail: severance@yuhs.ac

제 610호

광혜원 · 제증원 125년
www.iseverance.com
2009년 5월 25일(월요일)

연세의료원소식

YONSEI UNIVERSITY HEALTH SYSTEM NEWS

존엄사 판결에 집중된 세계의 이목



지난 21일 대법원의 ‘존엄사’ 관련 최종판결에 대해 박창일 의료원장과 관련의료진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국내 의학사에 큰 의미를 남긴 이번 판결에 국내는 물론 해외 언론들이 큰 관심을 나타냈다. 사진은 기자회견장을 가득 메운 국내외 언론사 취재진들.
〈관련기사 7면〉

24시간, 365일 전화로 간편하게 진료예약 끝!!

강남세브란스, 24시간 예약 콜센터 가동

강남세브란스병원이 12일부터 24시간 365일 연중무휴로 진료 예약, 변경, 취소 전화서비스를 도입하면서 ‘고객만족 1등 병원’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강남세브란스병원은 그동안 홈페이지를 이용해 진료예약 서비스를 시행해왔다. 하지만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병원 문턱은 여전히 높았다. 이에 강남세브란스병원은 전문상담원과 전화를 통해 휴일은 물론 야간에도 병원 진료에 관한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번 시스템을 도입했다.

조우현 병원장은 “이번 진료예약서비스를 통해 언제나 간편하게 병원을 이용할 수 있어 고객만족과 국민보건 두 분야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향후 24시간 콜센터 운영을 확대해 전문 진료상담 및 검사결과에 대한 안내까지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류 성 wing17@

한·일 뇌심혈관 연구 협력체결

연구차원을 넘어 치료제 상용화 목표로

연세뇌심혈관질환 융합연구사업단(YIRIC)이 일본 국립순환기병센터(NCVC)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융합연구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YIRIC 김동익 단장(의대 영상의학과)과 NCVC 겐지 강가와 연구소장은 21일 세브란스병원장 회의실에서 MOU 체결식을 갖고 향후 중개연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을 약속했다.

NCVC는 일본 오사카에 위치한 600병상 규모로 운영되는 순환기(혈관질환) 전문병원으로, 첨단기술을 이용한 심혈관질환 치료제나 인공심장 등을 개발하고 있다. 연간 국제학회에 게재되는 논문은 250~300여 편에 이른다.

YIRIC는 31년 역사를 지닌 NCVC의 축적된 연구 개발 시스템과 성과 등을 공유함으로써 뇌심혈관질환 국제 협력 연구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김동익 단장은 “뇌심혈관질환의 예방과 진단, 치료의 전 과정에서 기초연구자와 산업체, 임상사의

공동으로 참여하는 새로운 융합연구의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부오 하시모토 센터장은 “한·일 양국 모두 심혈관질환에 대한 위험성이 커지고 있어 이번

중개 협력 연구는 의미하는 바가 크다”며 “양국의 건강증진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철 세브란스병원장은 “이번 사업은 연구수준을 넘어 치료제의 상용화가 목표”라고 강조했다.

한편 YIRIC는 협약식에 이어 종합관 331호에서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연구 사업 수행을 알리는 신호탄을 올렸다.

개소식에는 연세대 김한중 총장과 박창일 의료원장을 비롯해 권영진 한나라당 의원, 김법완 보건산업진흥원장, 일본 국립 순환기병센터 소장 등 국내외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박창일 의료원장은 “YIRIC는 사망 ‘병원을 중심으로 산·학·연



이 협력해 개발된 기술을 실용화함으로써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메디클러스터를 구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소식에 이어 은명대강당에서 열린 한-일 공동 심포지엄「YIRIC-NCVC Joint Symposium 2009」에서는 겐지 강가와 박사를 비롯한 국내외 뇌심혈관질환 연구자들이 400여명의 청중들이 참석한 가운데 각 분야별 전문내용을 발표하며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였다.

한편, NCVC의 겐지 강가와 소장은 일본의 차기 노벨상 후보로 유망한 BNP를 처음 연구하였고 이후 그렐린(ghrelin)이라는 식욕억제 호르몬을 발견한 바 있다.

이상균 신일기업 부사장 4억

의료원 발전 및 의대 장학기금으로

신일기업 이상균 부사장이 18일 의료원 발전기금과 의대 장학기금으로 2억 원씩 총 4억 원을 기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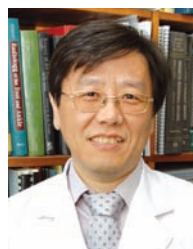
이상균 부사장은 최근 세브란스병원에서 의대 이진우 교수(정형외과학)의 진료를 받았다. 이상균 부사장의 부친 이세웅 신일학원 이사장도 의대 전재운 교수, 임승길 교수, 정남식교수(이상 내과학)의 환자이며 할머니 역시 세브란스병원에서 진료

를 받고 있다.

기부금을 전달받은 발전기금 사무국은 이 부사장이 기부를 통해 정성을 다해 가족을 진료해 준 세브란스병원의 의료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했다고 전하며, 사진게재와 인터뷰는 정중히 사양했다고 밝혔다.

부친 역시 2007년 9월 세브란스병원 발전기금으로 3억원을 기부한 바 있다.

의대 서진석 교수 연구소 발전기금 1억원



의대 서진석 교수(영상의학과)가 의과대학 부설연구소 발전을 위한 기

금으로 1억원을 기부했다.

이 기금은 ‘연세의료원-한국생명공학연구원 메디컬 융합연구소’의 발전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서 교수는 근골격계영상의학과 분자영상의학분야의 권외자로 2007년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을 수상한 바 있다.

테디밸리 직원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

의료원은 지난달 의료서비스 제휴 협약을 맺은 테디밸리 골프&리조트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및 제세동기 사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지난달 24일과 25일 이틀에 걸쳐 실시된 테디밸리 직원 120여 명을 대상으로 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와 적정진료관리실 심폐소생술 교육·훈련센터의 지원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예상치 못한 긴급 상황에도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자세하고 정확한 교육이 이뤄졌다.

연극으로 시민과 소통을 제3회 G-mind 정신건강연극제 개최



세브란스정신건강병원은 19일 광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정신건강의 날을 기념해 연극행사를 개최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한 G-mind 정신건강연극제는 극단 '깃발'에서 기획 및 연출을 맡아 '내마음의 보석상자'라는 제목으로 공연을 펼쳤다.

문화예술활동을 통해 시민들과의 다양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정신장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없애기 위해 기획된 이 날 행사에는 약 350명의 광주시민들이 참석해 성황리에 진행됐다.

용인세브란스 골다공증 행사

용인세브란스병원(병원장 박진오)은 13일 용인시 노인복지회관에서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2회 골다공증의 날' 행사를 가졌다.

병원은 의학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고령화 사회의 대표적 질환인 골다공증에 대한 이해를 돕고, 예방법과 치료법을 알리고자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

김경옥 교수(내과)의 '골다공증의 약물적 치료'를 시작으로 채두병 교수(산부인과)·박진오 교수(정형외과)의 강좌에 이어 모든 참석자에게 무료 골밀도검사 시행은 물론 전문의와의 상담시간도 마련됐다.

한편, 용인세브란스병원은 지역사회 공헌과 질병예방을 위해 용인시 노인복지회관에서 노인성 질환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강좌 및 행사를 개최해 오고 있다.

모범직원 및 부서 시상

의료원장상 등 66명 7개 부서



의료원은 20일 교직원예배 시간을 통해 2009년도 모범직원 시상식을 개최하고 66명의 직원과 7개 부서에 의료원장 및 단위기관장 포상을 수여했다.

사무처 시설관리팀 장재광 직원과 시설관리팀 등 24명의 직원과 4개 부서에는 의료원장 포상이, 감사실 감사팀의 김용운 직원과 세브란스병원 진단검사의학과 혈청파트를 포함한 42명의 직원과 3곳의 부서에는 단위기관장 포상이 주어졌다.

직원들에게 직접 표창패를 전달

한 박창일 의료원장은 수상자들을 축하하며 "경영혁신을 위한 의료원의 활동에 적극적인 동참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의료원장 포상은 개인에게 상금 20만원과 4일의 포상휴가, 단체에는 인원에 따라 80~100만원의 상금을 지급했으며 단위기관장 포상은 개인에게 15만원의 상금과 1일의 포상휴가를, 단체에는 60~80만원의 상금을 지급했다.

한진호 jino7527@

<수상자 명단 4면>

“이런 생각 어떨까요?”

관심·참여 높아져 제안 건수 대폭 증가

교직원 제안 건수와 제안 채택 건수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세브란스병원은 지난해 교직원 제안/채택 건수가 980건으로 2006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채택된 건수도 299건으로 약 2.3배(2006년 대비) 증가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제안제도는 교직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제안을 장려하고 이를 의료원 정책에 반영해 고객서비스를 높이고 직원들의 참여의식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1973년에 도입됐으며, 2006년 9월부터 적정 진료관리실에서 전담하고 있다.

2006년 접수된 제안 건수는 439건으로 이 중 129건이 채택됐으며, MBO 달성률은 39.1%에 불과했다.

하지만 제안제도가 본격적으로 활성화 된 2007년 총 552건이 접수돼 199건이 채택됐으며 MBO 달성률도 60%로 높아졌다.

이후 교직원들의 참여가 늘면서 지난해 980건이 접수됐고 이 중 299건이 채택됐다. 특히 MBO 달성률은 무려 122%로 급등했다.

접수 건수가 증가한데는 교직원들이 병원 운영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이에 따라 직접 참여하는 문화가 조성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채택 건수가 증가한 것 또한 흥미로운 제안이 아닌 질적으로도 높은 의견들이 많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세브란스병원은 교직원들이 제안 의식 고취를 위해 매년 채택된 제안 중 '창의상', '절약상', '업무개선상', '우수제안부서상'을 선정, 고객만족경진대회에서 별도로 포상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또 양질의 제안이 나올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계획도 마련할 방침이다.

박진섭 jins@

간호대, 미국 에모리대

교환학생 프로그램 실시

간호대학(학장 김소선)은 11일부터 31일까지 3주간 2009년도 에모리대학교 간호대학생 교환학생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에 간호대를 방문한 에모리대 학생은 4학년으로 진급할 예정인 피델라 치앙 등 총 3명으로 간

호대학 수업 참관을 통해 우리나라 의료체제와 간호학에 대해 배우고 세브란스병원에서의 실습 참관, 어린이병원학교 자원봉사, 보건소, 노인요양시설, 조산원 견학 등을 통해 간호현장을 경험하고 있다.

신뢰받는 의료기관을 위해

행정책임자 및 보직자 2차 워크숍

의료원은 15일 그랜드힐튼호텔에서 '가장 신뢰받는 의료기관 만들기'를 주제로 행정책임자 및 주요 보직자 등 약 40여 명이 모인 가운데 2차 워크숍을 열었다.

워크숍에서는 의대 방동식 교수(피부과)와 서창옥 교수(방사선종양학), 라선영 교수(내과)가 각각 진료·출판·연구에



있어서 윤리적 측면에 대해 발표했고, 윤주선 전문위원이 의료분야의 공정거래에 대해, 서기원 LG 상무가 정도 경영 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노사파트너십 사업체 선정

노동부로부터 4,000만원 지원금

의료원이 6일 노동부산하 노동연구원 부설 고성과작업장 혁신센터에서 선정한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사업체로 선정돼, 약 4,000만원의 지원을 받아 노사관계의 발전을 도모하게 됐다. 총 70개 기업에 업체당 최대 4,000만 원 이내의 자금을 지원하게 되는 이번 지원사업은 공정성과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노사 프로그램을 공모·심사해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적절한 자격을 갖춘 프로그램을 선정했다.

올해는 특히 선정 기관과 업체 수가 줄어들고 심사기준이 강화되는 등 엄격한 조건아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상생·협력의 노사문화를 사회저변으로 확산시키고, 불합리한 노사관행 개선, 작업장 혁신 등을 도모해 노사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회의 모델을 만들기 위해 기획됐다. 또, 지난 2003년 이후 전국 1,700여개 사업장에 140여 원의 지원금을 지원했다.

한진호 jino7527@

젊은 의학도들의 화합 도모

의대-서울대의대와 '연서전' 가져

의과대학은 지난달 18일 연세대 대운동장 및 체육관에서 제1회 연세의대 서울대의대 정기교류전을 개최했다.

연세대와 서울대 의과대학 본과 4학년 총대단이 함께 주최한 이번 정기교류전은 양교 본과 4학년 학생들이 참여해 농구와 축구 등 구기종목과 계주, 2인 3각,

단체 줄넘기, 닭싸움 등 각종 운동경기는 물론 밴드 공연과 빙고 등 다양한 즐길 거리가 마련된 작은 축제로 치러졌다.

이번 교류전은 국내 의학계를 선도하는 두 학교 젊은 의학도들의 친목과 인적 네트워크 형성 위해 추진됐다.



“직접 맛보시고 평가해 주세요”

암센터는 지난 12일 지하 1층 로비에서 암환자 식단 공개 시식회를 가졌다. 이날 시식회에는 정현철 원장을 비롯한 의료진들과 입원·외래 환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환자들은 암환자 특성별로 조리된 음식을 둘러보면서 직접 맛보기도 했다. 특히 이번 시식회에서 정현철 원장과 정남식 의대학장이 환자들에게 직접 음식을 나눠 주기도 했다.

이재욱 fnti0921@

기부*기증

받는 당신의 기쁨보다 주는 나의 기쁨이 더 큼니다
루이스 헨리 세브란스(1838-1913)

자원봉사 기획 / 의료원 교직원 사회봉사활동 소개 - 마지막회

◆ 뇌성마비 환우 이벤트

재활병원 김희석 물리치료사를 포함해 6명의 봉사단은 4년 전부터 뇌성마비 환아들에게 다양한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환아들이 가장 가보고 싶어 하는 곳이 놀이동산인 점을 착안해 이들은 환아들과 함께 롯데월드를 월 1회 방문하고 있다. 이곳에서 다양한 이벤트와 놀이기구를 이용하게 함으로써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주고 있다. 또한 롯데월드 방문시간에는 환아들의 재활치료를 지체하는 보호자들에게 개인 자유시간을 가지게 해줌으로써 심리적 안정과 위안을 주고 있다.

이들 봉사팀은 송년잔치, 운동회, 장기 자랑대회 등 뇌성마비 환아들의 만남의 장을 열어 환아 치료 및 교육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며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봉사팀의 활동은 사회참여 기회가 부족한 환아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느끼게 해줌으로써 자존감을 향상시키고 사회성을 증진시킬 것이다. 또, 의료원의 대외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봉사팀원들에게는 타인을 돕고 배려하는 봉사정신을 함양시킬 것이다.

◆ 홍파복지원 노인과 장애인 돌봄 봉사

사무처 건축팀 영선파트 김동구 직원은 홍파복지원 산하 시각장애인 생활시설 대린원과 홍파양로원 거주인들과 다양한 방식의 교류를 통해 이들은 돕고 있다. 김동구 직원은 매주 일요일 홍파양로원과 대린원에서 시각장애인들의 목욕 봉사와 숙식장소를 청소해주고 한글을 함께 공부하며 어르신들의 말벗이 되어주고 있다.

홍파복지원에서 실시하는 여러 행사에도 직, 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어버이날에는 노인분들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나타날 수 있는 소외감을 해소해 주기 위해 어르신들에게 직접 카네이션을 달아주고 있다. 또 나들이 행사로 온천나들이에 참석해 목욕비와 간식비를 제공하고 있다.

연중행사로 총 6회에 걸쳐 노인분들이 관심 가져하는 박물관 나들이, 맛집 방문, 각종 체험프로그램 등 시각장애인들의 특성을 고려해 식비지원 및 입장료 지원 등 문화행사를 경험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다.

김동구 직원의 이러한 활동은 연세의료원의 봉사정신을 널리 알려 대외이미지 제고에 기여하며 나아가 장애인들에게 활동성을 보장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긍정적으로 전환되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끝>

강아행 환자 2,000만원 다시 기부

손씻기 캠페인 후원 및 청력 회복 연구비로

올해 초 안·이비인후과병원 발전기금으로 1,000만원을 기부한 바 있는 강아행 환자가 세브란스병원 ‘하이! 파이프 캠페인’의 격려금과 이원상 교수(이비인후과학)의 청력회복 연구 후원금으로 각각 1,000만원을 추가로 기부했다.

강아행 환자는 만성중이염으로 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차도가 없이 오히려 병원 감염을 통한 증상의 악화가 의심돼 우리 안이비인후과병원을 찾아온 환자다. 지난 3월 이원상 교수로부터

수술을 받고 경과가 좋아 즉시 상태가 호전됐고, 이원상 교수의 정성스런 치료를 통해 현재는 순조롭게 건강을 회복하는 중이다.

강 환자는 “이번 경험을 통해 손씻기를 통한 감염예방의 중요성을 체험했고, 실력 있고 친절환 의료진에게서 역사와 믿음의 힘을 보았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강아행 환자는 사진 게재를 사양 했다.

치과대학 학부모회 기금 기탁

2,000만원 시설향상 등에 써달라...

15일 치과대학 학부모회 장병건 회장과 대의원 2명은 정문규 치대 학장에게 치과대학발전기금 2,000만원을 기탁했다.

이번 기부금은 새로 선출된 학부모회 임원들과 예과 신입생 부모님들이 주축이 돼 치과대학 발전을 위한 뜻으로 모아진 것.

치과대학 학부모회는 지난 몇 년간 학교의 노후 시설 개선과 교육과정 개발 등을 위해 바라며 정례적으로 기부금을 전달해 왔다.

직접 기금을 전달한 장병건 학부모회장



은 “학교 발전을 위해 작은 힘이나마 보태게 된 것을 우리 모두 기쁘게 생각한다”며 기부금 조성에 참여한 학부모들의 마음을 전했다.

“지덕체를 갖춘 의학자가 되라”

연세대 최우등생, 의대 성적우수학생, 대학원 우수논문상 시상식



연세대는 15일 총장 공관에서 2008학년도 2학기 최우등생 시상식을 가졌다.

의대에서는 김수정(본1), 허자윤, 김재민(본2), 방민지, 유승찬(본3), 김이정, 신한술(본4) 학생이 최우등생 상장을 받았다.

치대에서는 금병탁(본2), 권혜진(본3), 김성아(본4)학생이 상장을 받았다.

간호대에서는 방지선(2학년), 박한나(3학년) 양지영, 변은성(4학년) 학생과, 박예봉, 허정미(09졸) 졸업생이 상장을 받았다.

한편, 의대는 15일 알렌관 무악홀에서 2008학년도 2학기 성적우수학생 시상식을 열었다.

성적 우수학생으로 의예과 2학년 김나리,

박세현, 성민동, 안성재, 윤소훈 학생이 시상했다.

의학과 1학년에 박경륜, 윤민재, 이승연, 임채환, 정인하, 최한승 학생과 2학년 김대훈, 김재민, 김태호, 서지원, 허자윤 학생이 시상했다. 3학년에 김영광, 김동영, 방민지, 유승찬, 한정호 학생과 4학년 김남욱, 김다래, 김이정, 박세희, 신한술, 이은영 학생이 시상했다.

정남식 의대학장은 “의학적 지식으로 무장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울 줄 알며, 건강한 신체를 가진 지덕체의 의학자 될 것”을 당부했다.

이 날 행사에서는 의대 김경환 교수(약리학)가 지식 창출의 의학자가 될 것을 강조하는 특별강연이 진행됐다.

또, 13일 연세대학교 논지당에서 열린 2009학년도 1학기 대학원 우수논문상 시상식에서 의대 대학원 윤재석(통합 8), 김여은(석사 4), 조한별(석사 4) 원생이 의학부문 본상을 수상했고, 송원경(박사 3) 원생과 간호대의 고윤희 원생(석사)이 장려상을 수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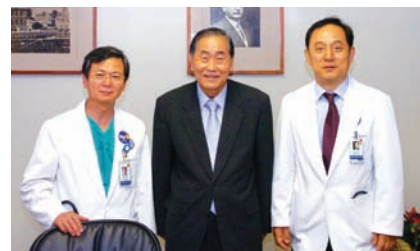
한기만 목사 1,000만원

심장혈관병원 건축기금으로

한기만 목사(여의도 침례교회)가 18일 방문해 정남식 의대학장과 장병철 심장혈관병원장을 만나 심장혈관병원 건축기금 1,000만원을 기부했다.

정남식 의대학장으로부터 치료를 받았던 한기만 목사는 “병원으로부터 받은 사랑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었다”고 기부 이유를 밝혔다.

한 목사는 심장혈관병원이 새로 건축되



는데 작은 벽돌과 같은 역할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남, 맞춤형 보장구 전달

희귀 난치성 환자들의 새 손과 발로

강남세브란스병원이 19일 희귀 난치성질환을 갖고 있는 환우들에게 보장구를 전달했다.

이날 9명의 환우들에게 전달된 보장구는 재활의학과의 면밀한 환자 평가 및 환자와 보호자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각종 사양을 갖춘 맞춤형 보장구로 특별히 제작된 것.

이날 보장구 지원은 일송복지재단의 후원기금으로 이루어졌으며, 병원 자체 심



사위원회에서 경제력과 보장구 지원의 시급성 및 유용성 등의 평가를 통해 지원 환우를 선정했다.

“협력강화로 많은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몽골 주요 대학 학장단 연이어 방문

올해도 몽골의 주요대학에서 의료원 산하기관들을 방문해 최첨단 의술과 시스템을 배워가고 있다.

지난달 22일 몽골대학교 치과대학의 암알(Amar) 학장과 교수 3명, 학생 12명 등이 치과대학을 방문, 양교간의 협력관계를 재확인했다. 방문단은 정문규 치과대학장 등 치과대학 관계자와 함께 환담의 시간을 가진 후 치과대학과 세브란스병원의 여러 최첨단 의료 시설을 둘러봤다.

또한 몽골 국립의과대학 바트바타르 학장과 주임교수 등 총 5명의 방문단은 지난달 26일부터 29일까지 의대를 방문했다. 27일 의대학장실에서 정남식 의대학장과 학장단, 주임교수와 상견례를 가진 후 임상시험센터와 기초학 교실, 장기이식센터 등을 살펴봤다.

유용한 의학정보 등책 드려요

강남세브란스병원이 지역주민들의 건강지킴이 역할에 적극 나서고 있다.

8일 어버이날을 기념해 대강당에서 망막에 이상을 느끼는 노인 100여명을 대상으로 의대 김성수 교수(안과)가 ‘노인성 망막질환의 예방과 치료’를 강의했다.

행사에서는 참석자를 대상으로 무산동 황반변단을 실시해 망막질환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또 자가 진단용 근거리시력표와 망막질환 책자도 제공했다.

13일과 14일에는 외과 교수진이 임페리얼 펄리스 호텔을 찾아 호텔 여직원 100여명에게 유방암의 예방과 치료에 관한 강좌를 펼쳤다.

강남구 보건소와 공동으로 마련한 이번 유방암 강좌에는 정준교수, 이승아 교수(외과)가 참여했으며, 최근 젊은층에서도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유방암의 자가 진단을 통한 조기 발견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장애인들의 행복 나들이 강남세브란스, 장애인 초청 특별 진료봉사

강남세브란스병원(병원장 이철)은 최근 원내 봉사모임인 ‘사명실천총괄팀(팀장 김정호)’ 주관으로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소속 장애인 42명을 초청, 소아청소년과를 비롯한 각 임상과에서 진료와 치료를 실시했다.

개원 26주년을 기념하고 장애인의 날을 맞아 범사회적 관심을 유도하고자 마련 된 이번 봉사활동에는 64명으로 구성된 병원 교직원 자원봉사자들이 장애인들과 1:1로 봉사활동을 펼쳤다.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산하 4개 기관에 소속된 시각1급(10명), 지적장애(31명), 발달장애(1명) 장애인들은 연령에 따라 소아청소년과와 가정의학과에서 기초적 검진을 통해 몸 상태를 확인하고 치과 검진과 치료를 받았다.

치과 진료를 담당한 치대 박정원 교수(보존과)는 “바르게 양치



하는 방법을 교육했으며 불소도포를 실시해 치과질환에 대한 예방에도 힘썼다”면서 “지속적인 관리가 이뤄지도록 도움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진료봉사 활동을 기획한 강남세브란스병원 사명실천총괄팀장 김정호 교수(진단검사의학과)은 “장애인의 날을 맞아 의료사각지대에서 소외된 장애인들을 초청해 무료검진을 실시하게 됐다”며 “비록 하루 동안의 병원 나들이지만 같이 교감을 나누는 등 삶의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했다”라고 말했다.

김휘윤 prman@

“이제 마음껏 뛰어 놀래요!”

외국 어린이들 무료 수술 받아

선천성 심장병을 가진 외국 어린이들이 심장혈관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무사히 고국으로 돌아갔다.

지난 12일 세브란스 심장혈관병원 78병동에서는 지난달 25일 한국을 찾은 우즈베키스탄 어린이의 환송회가 열렸다. 테니스(2), 아지존(5) 그리고 아지즈벡(4)은 태어나면서부터 심장에 구멍이 있어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얼굴이 파랗게 변해 오래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했다. 그러나 우즈베키스탄의 열악한 의료 시설과 비싼 수술비 때문에 수술은 엄두를 내지 못 했다. 무료수술을 위해 지난해 11월 우즈베키스탄을 찾은 박영환 교수가 이들은 한국으로 초청해 무사히 수술을 마



쳤다.

또, 지난달에는 우간다에서 온 제인(11, 여)도 13일 무료 수술을 받았다. 특히 제인은 지난 1983년 미국에서 심장수술을 받고 입양된 이길우 씨(30)가 중간 역할을 해 관심을 끌었다.

박 교수는 “아직 수술을 받지 못하는 어린이들이 너무 많다”며 “과거 어린이들이 심장수술을 위해 외국을 나갔지만 이제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의료수준을 가진 만큼 베꿀어야 할 때다”라고 말했다.

병실에서 우주로 떠나요

천문관측, 천문학 강연 등 다양한 행사 열려

세브란스병원(병원장 이철)은 7일 국제천문연맹과 세계천문의해 한국조직위원회와 공동으로 ‘병실에서 마음의 별을 찾다’ 행사를 개최했다.

어린이병원 예배실에서는 한국천문연구원 문홍규 박사가 어린 환아들과 가족들에게 ‘가깝고도 먼 우주’를 주제로 영상 강연을 펼쳤다. 은명대강당에서는 피아니스트 김성희씨가 금성, 토성 등을 표현한 피아노 소품들과 여러 음악을 들려줬다. 이후 한국천문연구원 이지윤



박사가 ‘우주로의 여행’에 대해 강연했다.

한편 로비에서는 천체사진 전시회가 개최됐고 저녁 8시부터는 병원 3층 현관에서 천체망원경을 이용한 별 관측회 행사가 진행됐다.

강남세브란스에 펼쳐진 흥겹고 우아한 춤사위

2009 서울 세계 청소년 무용축제에 참가한 각 나라 무용단 5개 팀이 4일 강남세브란스병원 환자를 위한 공연을 펼쳤다.

이날 공연에서는 일본 단다바하 댄스 컴퍼니가 ‘사쿠라 판타지’와 ‘공간여행 출발’을, 싱가포르 청소년 무용단이 ‘하얀 난초’를 선보였다.

핀란드 포리 무용단의 ‘노래 노래 노래하세’ 공연과 대한민국을 대표한 크누아 영 발레단은 ‘춤추는 빼어로’를 통해 관객과



하나가 되는 시간을 가졌다.

조우현 병원장은 “무용이라는 매개체로 고통과 질병 없는 사회를 만들어 나갈수 있다”며 참가해 준 모든 무용단에게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2009년도 모범직원 수상자 명단

▶ 개인 포상 - 의료원장상 장재광(사무처 시설관리팀), 조광철(세브란스병원 간호고충관리팀), 최충실(기획예산팀), 권오빈(내과부), 김상겸(병리과), 장문영(수술실간호팀), 김계옥(외래응급실간호팀), 성명자(외래응급실간호팀), 김혜진(이식외과), 박인영(적정진료관리팀), 김문수(특수간호팀), 윤종원(암센터 방사선종양학과), 김선아(재활병원 작업치료팀), 이 청(심장혈관병원 심장혈관외과), 정영화(안·이비인후과병원 이비인후과), 양영규(어린이병원 경영지원팀), 이준용(치과대학병원 경영지원팀), 신정아(강남세브란스병원 내과부), 조금희(수술실간호팀), 이원택(영상의학과), 신혜숙(입원간호팀), 유진원(입원간호팀), 차정률(총무팀), 임선희(웅인세브란스병원 간호팀),

▶ 개인 포상 - 단위기관장상 김용운(감사실 감사팀), 김경덕(의료정보실 의료정보팀), 김기량(사무처 경리팀), 고시환(의과대학 미생물학교실), 강민규(치과대학 구강생물학교실), 박정여(세브란스병원 병리과), 장현욱(보통심사팀), 최지수(영상의학과), 차영자(영양팀), 노춘애(외래응급실간호팀), 정지진(외래응급실간호팀), 박창서(임상시험센터), 김수현(입원간호팀), 김혜진(입원간호팀), 이혜영(입원간호팀), 주소영(재활의학과), 안지현(조제팀), 김영란(진단검사의학과), 박미경(초음파검사실), 심정희(초음파검사실), 김영희(특수간호팀), 윤혜영(특수간호팀), 김신자(재활병원 간호팀), 박선영(심장혈관병원 간호팀), 신동홍(경영지원팀), 유지원(심장내과), 김민정(어린이병원 간호팀), 안성은(간호팀), 이행란(간호팀), 김지희(치과대학병원 구강악안면외과), 정재욱(보철과), 김은성(강남세브란스병원 건강증진센터 사무팀), 김은숙(수술실간호팀), 방성민(수술실간호팀), 문봉주(신경외과), 김경미(외래응급실간호팀), 오 정(외래응급실간호팀), 이진영(원무팀), 김수연(의무기록팀), 장명숙(진단검사의학과), 송선미(세브란스정신건강병원 간호팀), 김보라(교육연구부)

▶ 단체 포상

- 의료원장상 : 사무처 시설관리팀, 세브란스병원 초음파검사실, 심장혈관병원 간호팀 심장혈관수술실, 강남세브란스병원 영상의학과 CT촬영파트

- 단위기관장상 : 세브란스병원 진단검사의학과 혈청파트, 암센터 간호팀 35병동, 웅인세브란스병원 총무팀 시설영선파트



서울시 간호사회 주최 사진 및 UCC 공모전 수상

강남세브란스병원 간호국이 서울시간호사회가 제38회 국제간호사의 날을 기념해 개최한 ‘간호사진 및 UCC 공모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12일 올림픽공원 펜싱경기장에서 열린 행사에서 간호국 최은빛 간호사(NICU)가 ‘맑은 꿈 아기 수호천사’(사진)라는 작품으로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수유를 하는 간호사와 받아먹는 아기의 모습을 생생하게 담아 낸 작품으로 최 간호사는 상패와 함께 상금을 받았다. 또 65병동 윤현미 간호사 외 15명이 참여한 UCC(작품명-Miss & Mrs. 65)도 공모전 동상에 올라 상패와 상금을 받았다.

강남세브란스 일일 명예 주치의 “황보입니다~”

MBC 일요일 일요일 밤에 ‘우리 결혼했어요’와 ‘무한걸스’를 통해 전 국민의 사랑을 듬뿍 받아 온 가수 황보(본명 황보혜정) 씨가 어린이날을 맞아 강남세브란스병원 일일 명예주치의로 나섰다.

강남세브란스병원은 5일 소아병동에서 황보 씨를 일일 명예 주치의로 위촉해 환아들을 방문하고 위로하는 행사를 가졌다.

황보씨는 주치의 가운과 명찰, 위촉장을 받은 뒤, 소아청소년과 의료진과 함께 각 병실을 방문해 환아들을 만났다.

황보씨는 환아들에게 선물을 전달하면서 어디가 얼마나 아픈지 물어보고 빠른 쾌유를 통해 씩씩하고 건강하게 자라줄 것을 부탁하며 기념사진을 찍기도 했다.

황보씨는 인사말을 통해 “지난 해 강남



세브란스에서 열린 어린이날 일일 명예 주치의 행사에 참가했던 동료 연예인 송은이씨의 추천과 소개를 받아 행사에 참여하게 됐다”고 밝히면서 “모든 환아들이 어서 빨리 완쾌돼 활짝 웃으며 건강하게 뛰어 놀았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남겼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연세대학교 미술 동아리와 아카펠라 동아리가 참여해 환아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세브란스, 라이프대학에 의료기기 기증

세브란스병원이 산부인과 초음파기기를 캄보디아 라이프대학에 기증했다. 전달된 초음파기기는 앞으로 세워질 대학병원 조산센터에서 쓰이게 된다.

지난 4일 세브란스병원장실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이철 병원장, 김묘원 의공기

술팀장 그리고 김조자 라이프대학 총장이 참석했다. 이철 병원장은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전파하고 계신 김 총장님께 감사 드린다”며 “앞으로도 두 기관이 좋은 인연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미니인터뷰 | 김조자 캄보디아라이프대학총장/ 연세대 명예교수

“모든 역경이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라 생각하니 더 열심히 하게 되요.”

김조자 총장이 캄보디아 라이프대학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 지난 2008년. 김 총장은 당시 간호협회장으로 라이프대학을 방문해 각종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었다. 이런 인연으로 대학 총장직 권유를 받아 총장에 취임했다. 불교 국가인 캄보디아에서 기독교대학 총장으로 일을 한다는 것은 역경의 연속이다. 하지만 김 총장은 그 역경조차 하나님의 사랑이라 말한다.

“(캄보디아에서)대학 인가를 받는데 보통 6개월인데 우리는 2년이 넘게 걸렸다. 하지만 새로운 개척자로서 하나님의 좋은 쓰임을 받는다고 생각한다.”

2006년 학생 선발을 시작한 라이프대학

은 간호대, 컴퓨터공학과 등 종합대학의 모습을 갖추었고 김 총장은 보다 질 높은 교육을 위해 외국 교수 초빙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또 조산센터 설립을 통해 전문 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캄보디아 보건의료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문화적 차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적응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기에 저 또한 변함없이 그 사랑을 실천하고 싶어요”라며 김 총장은 새로운 개척자인 캄보디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랐다.



학교발전의 마음을 담아

의대 2억 6천만원, 치대 2천5백만원,
간호대 5천 5백여만원 모아져



지난 9일 창립 124주년 재상봉 행사에서 졸업 동기생들의 학교 발전을 위한 마음이 모아졌다.

의대 59년 졸업 동기회(50주년)는 의대 발전기금으로 4,000만원을 기부했다. 84년 졸업 동기회(25주년)는 의대 발전기금으로 1억원, 광혜장학금으로 1억원, 동창회 발전기금으로 2,000만원을 기부했다.

특히 재상봉행사에서 공식적 모임 행사가 없었던 60주년 졸업동기회(49년 졸

11명은 의대 학장실을 방문, 암센터 건축기금으로 1,000만원을 기부했다.

치대 25주년 행사에서 1984년 졸업 동창들은 2,500만원을 학교 발전기금으로 기부했다.

간호대는 50주년 재상봉 동창들이 2,500여만원을, 25주년 재상봉 동창들이 2,000만원, 15주년 동창들이 500만원을 기부했다. 석현아 동창(84년)은 개인적으로 500만원을 기부했다.

◆ 인사 · 동정

의대 김성재 교수팀 해외학회지 논문상

의대 김성재 교수팀(정형외과학, 천용민 교수, 김형식 교수(응인 정형외과))이 8월 삼성의료원 본관 강당에서 열린 제27차 대한슬관절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정형외과학 연구 저널(Journal of orthopaedic research)에 게재한 ‘슬관절의 후외방 구조물과 불안정성에 관한 역학적 특성 평가’로 해외학회지 논문상을 수상했다.

의대 김건홍 교수 보건산업진흥원 질병연구단장에 선임

의대 김건홍 교수(생화학/분자생물학)가 1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공개모집한 R&D사업진흥본부 질병연구단장에 선임됐다. 임기는 5월 1일부터 2010년 3월말까지. 신임 김건홍 단장은 대한의사협회가 시상하는 의학학술상을 수상하는 등 지난 10여 년간 보건의료기술발전에 기여했다. 김건홍 단장은 앞으로 보건의료기술연구 개발사업의 기획, 관리, 평가와 기술개발정책 수립, 성과분석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의대 강은석 교수 당뇨병학회 ‘젊은 연구자 상’

의대 강은석 교수(내과학)가 8일 대구 EXCO에서 개최된 대한당뇨병학회에서 제5회 젊은 연구자 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만 45세 이하의 젊은 연구자를 대상으로 최근 3년간의 당뇨병분야의 연구업적에 대해 SCI 인용지수, 우수성과 상호연관성 등을 평가해 수여하는 상이다.

강 교수는 최근 당뇨병학회 최고권위지인 Diabetes를 비롯하여 Diabetes Care, Clinical Pharmacology and Therapeutics, Clinical Endocrinology 등에 논문을 낸 성과를 인정받아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의대 홍사민 강사 美 안연구학회 ‘트레블 그랜트 (Travel Grant)’ 수상

의대 홍사민 강사(강남 안과)가 3일부터 7일까지 미국 플로리다 포트로더데일에서 열린 ‘ARVO(Association for Research in Vision and Ophthalmology) Annual Meeting (미국안과연구회)’에서 전 세계 40세 미만의 유망한 젊은 연구자 중 업적이 뛰어난 사람에게만 수여하는 ‘트레블 그랜트(Travel Grant)’를 받았다.

홍 강사는 ‘Spectral domain OCT를 이용한 유두주위 망막신경섬유층 두께 측정의 재현성’ 논문으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보건대학원 지선하 교수 국립암센터 연구프로그램 선정

보건대학원 지선하 교수가 국립암센터가 주관하는 2009년도 암정복추진 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에 ‘Genetic Risk Score를 이용한 대장암 발생 예측모형개발 연구’ 주제로 응모해 중견연구자 미래도전 프로그램에 선정됐다. 지선하 교수는 5월부터 3년간 4억원의 지원을 받는다.

의대 김경식 교수 일본 초청강연

의대 김경식 교수(외과학)가 지난달 20일과 21일 양일간 일본 오카야마에서 열

신동문 의대동창 특별강연

의학대상 상금도 암병원 건축기금으로 기부

제14회 연세의학대상에서 학술부문 대상을 수상한 신동문 의대동창(75년, 현 에모리대 교수)이 11일 의과대학 3학년 강의실에서 특별 강연했다.

박창일 의료원장, 정남식 의대학장과 김병수 전 총장 등 의대 선·후배 100여명이 참석한 강연에서 신 동창은 두경부암에 예방과 치료에 관해 강연했다.

한편, 신동문 동창은 연세의학대상 상금



1,000만원 전액을 암전문병원 건축기금으로 기부했다.

[수상소감] 제14회 연세의학대상 수상자

신동문 동창(학술부문)

모교 발전의 한 축이 되겠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모교에서 큰 상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30년동안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한 번도 모교를 잊은 적이 없습니다. 미국에서 연세의료원 발전 소식을 들으면서 나 또한 더욱 성장해 당당하게 모교에 방문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이 상은 더욱 정진하라는 모교의 칭찬이자 충고로 받겠습니다.

김인국 동창(봉사부문)

의료선교,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줘야

우선 이렇게 큰 상을 저에게 주신 것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퇴직으로 고민하고 있을 때 ‘기독교인이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해 본 적 있느냐, 좋은 일 한 적 있느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의료선교가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선교는 일단 시작해 보

는 것이 중요합니다. 젊은 시절부터 시간이 될 때 잠깐이라도 의료선교를 해 봐서 선교를 통한 즐거움과 정신적 보상을 느껴보는 것이 향후 선교를 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과거 의료선교의 기쁨, 그리고 지금 수상의 기쁨.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치과대학 동창회 자선 골프대회 가져

연세치대 동창회가 동문 간 화합을 다지며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자선 골프대회를 가졌다.

지난달 30일 골드 C.C에서 열린 골프대회에는 홍순호 동창회장, 정문규 치과대학장 등을 비롯해 동창들과 이원균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 최남섭 서울치치과의사회장 등이 참가했다.

이번 대회에서 메달리스트로 이준학 동창(85년)이, 준메달리스트는 김종원 동창(80년)이 차지했다. 조별 대항전 우승은 A조 이준승 동창(89년)과 B조 이상직 동창(84년)이, 여자부는 임성미 동창(97년)에게 돌아갔다.

기별 대항전에서는 14기(87년) 동창들이 우승을, 준우승은 20기(93년), 3위는 15기



(88년), 최다참가상은 20기(93년)이 각각 수상했다.

한편, 동창회는 이번 골프대회에서 모인 기금 156만원을 장애인 단체 ‘한뼘’에 전달할 예정이다.

박진섭 jins@

日 의대 노성훈 교수 수술 견학

13일 일본 구마모토대학 외과 바바 주임 교수 일행(3명)이 의대 노성훈 교수(외과학)의 위암수술을 참관하기 위해 방문했다. 이들은 위암전절제술 2례와 위전절제술 2례를 견학하고 돌아갔다.

세브란스, 한국사회 존엄사를 양지로 이끈다

법률적 기준 마련으로 입법화, 생명 경시풍조에는 경종

국내 첫 존엄사 소송으로 알려진 김모 할머니에 대한 연명치료 중단 관련 소송이 1년여만에 대법원 판결에 의해 인정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그동안 세브란스병원에는 피고가 되어 사회와 국민에게 고귀한 인간 생명의 회복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의료진의 노력을 알리면서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는 보루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다.

존엄사 소송에서 세브란스병원은 사실상 승소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의료계의 숙원이었던 무의미한 연명치료중단을 합법화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가 주장했던 사전의사결정서와 병원 윤리위원회와 같은 전문가 집단이 존엄사 결정의 중요 요소로 인정됐다.

2004년 연명치료 중단이 살인방조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보라매 사건 판결 이후 큰 혼란에 빠졌던 병원계와 의료계도 우리의 노력에 힘입어 의료진의 판단으로 존엄사를 시행할 근거를 확보하여 법제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민들도 생명을 끝까지 지키려는 우리의 의지와, 비약상고 등의 숨어있던 법적 절차를 찾아내어 환자와 보호자들의 고통을 줄이고자 했던 노력에 크게 공감했던 것도 적지 않은 성과였다.

이에 본지는 5월 21일 대법원 존엄사 인정 판결 직후 박창일 의료원장이 발표한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의 입장'과 '존엄사(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기준'을 게재한다. <편집자 주>

세브란스병원이 제시한 존엄사 관련 3단계 기준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은 존엄사라는 미명하에 단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안하고도 존엄한 죽음은 누구나 소망하는 일이지만 한번 거뒀진 생명은 다시는 회복할 수 없다는 점에서 존엄사는 매우 신중하고도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이 지점은 이번 환자와 관련하여 1심 판결 이후 연명 치료 중단의 요건이 되는지에 대하여 병원 내부에서 심도 깊은 논의 후에 수립한 것입니다. 이 기준에 따라 할머니는 회생 불가능한 사망 임박 단계라 할 수 없었기에 항소와 상고를 하였던 것입니다. 이 지점은 4월 30일 열렸던 대법원 공개변론에서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를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것은 이미 전개되고 있는, 일부의 무분별하고도 경쟁적으로 존엄사에 대한 의견 발표로 불필요한 갈등과 혼란이 일어날 것을 염려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기준안은 오늘 판결 이전에 준비된 것이므로 판결을 중심으로 각계의 의견을 모으고, 사회적 합의를 모아야 합니다.

고귀한 사람의 생명이 잘못된 판단으로 거두어지지 않도록 보다 명확하고 엄격하게 적용한 세브란스병원 존엄사 기준은 다

음과 같습니다.

우선 식물인간의 상태를 의학적 기준에 따라 3단계로 나누었습니다.

1단계는 - 뇌사 또는 회생 불가능한 사망 임박 단계

2단계는 - 인공호흡이 필요한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

3단계는 - 지속적 식물인간상태 등 3단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회생 불가능한 사망이 임박한 단계로 뇌사 환자 또는 여러 장기가 손상된 환자가 해당되며, 자기결정권이 없더라도 가족들의 동의와 병원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2단계는 인공호흡이 필요한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로 심각한 뇌손상으로 인공호흡기에 의존하며 주 질환의 회복이 불가능한 환자입니다. 이 경우에는 자기결정권의 행사가 필요하며, 치료 중단시 가족의 동의와 병원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이 되어야 합니다.

3단계는 지속적인 식물상태이기는 하지만 자발 호흡으로 생명이 유지되고 있는 환자로서 이에 대해서는 사회적, 법률적 합의가 이루어진 후에야 연명치료 중단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법원 존엄사 인정 판결에 대한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입장



그리고 이번 존엄사 관련 소송기간동안 저희를 성원하여 주신 의료계와 사회 각계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법원의 연명치료 중단 결정은 많은 고민 끝에 내려진 판단이라 믿습니다. 다만 현재 환자의 상태는 심각한 뇌손상으로 인공적인 호흡에 의존하고는 있지만, 통증에 반응을 보이고, 혈압 등도 안정적이며 튜브영양공급에 대한 거부감 없이 영양공급이 잘 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명백한 사망의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하기에는 이견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저희들은 그 내용을 수용할 방안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또한 연명치료를 중단하기 위해서는 <사전의사결정서>와 <병원윤리위원회와 같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판단을 거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저희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데 대하여는 감사드립니다.

현재 대법원 판결문이 접수되지 않았으므로 김 할머니의 연명치료 중단은 판결문 접수 후 가족과 병원 윤리위원회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시행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은 존엄사라는 미명하에 단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희생되어서는 안된다는 신념과 보라매병원에서 행한 연명치료 중단을 살인방조죄로 판결한 대법원 판례가 기준이 되어 온 현실을 외면할 수 없어, 1심과 2심 패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의 결정을 듣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판결로 인하여 합리성이나 실용성에 근거한 사회 일각의 생명경시 풍

조는 마땅히 사라져야 합니다. 또한 고귀한 인간 생명의 회복과 유지를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의료진의 숭고한 정신이 왜곡되거나 폄하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평안하고도 존엄한 죽음은 누구나 소망하는 일이지만 한번 거뒀진 생명은 다시는 회복할 수 없다는 점에서 존엄사는 매우 신중하고도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현재 의료현장에서는 회복 가능성이 있는 식물인간조차도 보호자들의 존엄사 요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살조차도 개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행동이라는 인식조차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반면 전혀 회복이 불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숨을 쉬고 있는 것만으로도, 따뜻한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람의 존재 가치를 발견해내고 행복을 느끼며 감사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단체나 개별병원 또는 개인이 무분별하게 존엄사에 대하여 경쟁적으로 의견을 발표하는 것은 불필요한 갈등과 혼란을 불러올 수 있으므로 자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판결에서 제시된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각계의 의견을 모으고, 사회적 합의를 이룬 상태에서 존엄사 입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입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고귀한 사람의 생명이 잘못된 판단과 무분별한 연명치료 중단이 일어나지 않도록 존엄사에 대한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기준에 따라 보다 명확하고 엄격하게 적용하여 연명치료 중단을 시행할 것입니다.

이번 소송으로 누구보다도 힘든 과정을 겪었을 가족 여러분에게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9. 5. 21

연세대학교 의료원장 박창일

삶	3단계	2단계	1단계	죽음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	인공호흡이 필요한 식물인간 상태	회생 불가능한 사망임박 단계	
	- 자발 호흡으로 생명 유지	- 심각한 뇌손상으로 인공호흡 의존 - 주질환 회복불가능	- 뇌사 - 다장기 손상	
	- 사회적, 법률적 합의 필요	- 자기결정권 행사필요 - 치료중단시 가족 동의 필요 - 외부인사가 포함된 병원 윤리위원회 또는 제3의 의사가 판단	- 자기결정권 불필요 - 치료중단시 가족 동의 필요 - 외부인사가 포함된 병원 윤리위원회 또는 제3의 의사가 판단	



해외의료기관 견학기 / 재활병원 물리치료팀 박창주

돌보기 / 세브란스병원 영양집중지원팀

JCI인증의 앞선 노력 싱가포르를 배우다



세브란스병원이란 한 울타리 내 있으면서 얼굴도 잘 모르고 이름도 모르던 선생님들과의 서먹서먹한 첫 만남. 4월 8일 오후, 친절 교직원 등 우수 교직원들이 해외견학을 위해 인천국제공항에 설렘을 안고 삼삼오오 모여들었다. 25명이 이환보 적정진료관리실장의 인솔하에 특별한 여행을 시작하였다.

싱가포르에 도착해 견학의 가장 중요한 일정으로 싱가포르 국립대학병원과 창이종합병원을 방문했다. 두 병원 모두 규모는 우리보다 작지만 우리보다 먼저 JCI 재인증을 받은 병원들로 재인증을 앞 둔 우리에게 좋은 견학이 될 것 같았다. 25명 중 반은 국립대학병원으로, 반은 창이종합병원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은 벽 없이 모든 것이 오픈된 병실이다. 말 그대로 OPEN WARD. 우리 병원의 5인 병실의 벽을 없앤 듯 한 모습을 하고 있다. 그런데 환자들의 얼굴에는 여유와 편안함이 넘치는 듯 했다. 다인실방을 지나 1인실 특실에 들렀다. 싱가포르를 서울 면적보다 조금 넓은 나라이다. 그래서인지 병실도 1인실이라고는 하나 기대했던 것보다 더 좁았다. 화장실도 좁고 병실에는 침대 하나와 휴식(오락)을 위한 컴

퓨터 자판과 모니터 한 대가 걸려있었다.

작년에 JCI 재인증을 받고 더 나은 병원을 만들어 가려는 노력이 곳곳에서 엿보였다. 그 중에서도 전자 차트는 완전한 상태는 아니지만 PAML(Pre-Admission Medication List)이나 SQE와 같은 SYSTEM을 진행하고 있었다. PAML은 환자의 Medication history를 알게 되고 필요한 약인지 중복되지는 않는지 알 수 있고 Medication list를 공유함으로써 약 처방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SQE는 입원 당시의 환자 상태가 기록되고 실제 사망할 정도의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하거나 ICU에 간 환자들이 기록된 다쳐음부터 안 좋았던 환자들은 제외된다. 이 시스템의 목적은 의사들의 환자 관리가 제대로 되는지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JCI 인증병원으로 결국 세브란스병원에서도 진행하게 될 항목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외 JCI 항목에서는 세브란스병원 역시 잘 진행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잘 준비해서 재인증을 받으라는 격려의 말씀에 감사하며 준비한 선물을 기쁨으로 전했다.

JCI 재인증,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노력하고 준비한다면 'The First & The Best' 이름에 합당한 병원으로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들어 주시리라고 믿는다. 병원 여기저기서 은은히 들려오는 복음성가의 찬양이 그리워진다.

NST를 아시나요?

영양집중지원(Nutrition Support)이란 영양상태 회복 및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경구, 경장 혹은 정맥으로 영양소의 전부 혹은 일부를 제공하는 것이다. 흔히 입으로 음식 섭취가 어려운 경우에 코를 통해 위나 소장까지 관을 삽입하여 영양소를 공급하는 경관 유동식과 정맥을 통해 영양소를 공급하는 PPN(말초 정맥영양) 혹은 TPN(중심정맥영양)을 말한다.

선행 연구들에 의하면 입원 환자 중에서 20~62%까지 영양 불량 상태라고 하며, 이는 치료 과정 중에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영양불량은 합병증 발생을 높이고, 병원 감염과 사망률을 증가시키며, 재원일수를 증가시키고, 의료비를 상승시킨다고 한다. 한편, 이러한 영양불량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영양집중지원이 적절하게 수행되지 못하면 오히려 감염, 수분 및 전해질 불균형, 고혈당이나 저혈당, 산-염기 불균형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의사, 영양사, 약사, 간호사 등 전문인들에 의한 팀 관리, 즉 영양집중지원팀(nutrition Support Team, NST)에 의한 전문적인 영양지원의 시행이 합병증 발생을 극적으로 줄일 수 있어 치료 결과를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의료비를 줄일 수 있다.

우리 병원 영양집중지원팀은 1996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영양집중지원에 관심 있는

의사, 영양사, 약사, 간호사의 자발적인모임으로 시작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수술 후 즉시 식사하기 어려운 외과 환자와 중환자실 환자를 대상으로 팀 회진 및 최신 영양집중지원관련 지식 습득을 위한 문헌 고찰, 영양집중지원과 관련된 연구 등을 시행하고 있다.

2006년에 우리 영양집중지원팀에서 위장관암 수술을 위해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영양불량의 위험율과 수술 후 영양지원 현황을 조사한 적이 있다. 대상 환자 중 약 47%가 수술 및 치료 과정에서 영양불량의 위험이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중 수술 후 영양지원 처방이 있었던 환자는 영양 불량이 위험이 있는 군이나 없는 군 모두에서 50%의 환자에게 영양 지원 처방이 있었다. 즉, 영양 집중지원이 필요한 환자에게 적합하게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되었다. 따라서, 향후 영양집중지원팀에서는 필요한 환자에게 환자의 상태와 치료에 적합한 영양집중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쉽게 영양 불량 상태에 이를 수 있고, 성장 발달을 위해 반드시 적절한 영양 공급이 필요한 소아 환자와 영양소 섭취 조절이 필요하거나 소화기 질환 등으로 영양 섭취가 어려운 내과계 환자들에게도 영양집중지원팀의 활동 범위가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